

달빛투어·여행토크·의상 대여...여행자들의 천국

‘양림살롱 여행자 라운지’ 오픈

‘양림살롱’ 프로그램 운영되던 한옥 개조 여행책자 400여권...정보 나눔 북카페 ‘오빠는 여행쟁이’ ‘신사유람단’ 등 진행 9일 오픈 하우스·한희원 ‘여행 이야기’ 원데이 티켓 구입 온종일 무제한 이용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문을 연 ‘양림살롱 여행자 라운지’는 400여권의 여행책자를 갖춘 여행 북카페이기도 하다.

‘양림동을 여행하는 방법,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 ‘근대문화유산의 보고(寶庫) 광주 양림동은 요즘 핫한 공간이다.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1930년대 풍 양장과 한복을 차려 입고 예스런 골목을 걷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고,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도 주말이면 양림동 곳곳을 영글에 담은 이들이 많다.

양림동 여행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이 생겼다. ‘양림살롱 여행자 라운지’(이하 여행자 라운지)다. 여행책을 만나는 북카페이자, 양림동을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처이자, 다양한 여행 강좌와 투어를 진행하는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찾은 여행자 라운지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차 한잔 마시며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최승효 고객과 한희원 미술관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양림동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장소다. ‘모던걸 테이블’이라는 문패를 달고 ‘양림살롱’의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이곳에서는 근대를 배경으로 한 연극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었다.

운영을 맡은 (주)쥬스컴퍼니는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여행자 라운지’를 오픈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책꽂이에 가득 꽂힌 400여권의 여행 관련 서적이다. 교도, 도쿄, 뉴욕, 발리, 파리·방콕·하노이... 세상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이들에게 유혹처럼 다가오는 책들을 넘기다보면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싶어진다. 높은 천장의 대들보가 그대로 보이는 공간엔 고풍스러운 의자와 낮은 축음기, 작은 상들리에, 낮은 전화기 등 근대 풍경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다.

공간 한쪽에는 다채로운 근대 의상을 대여하는 코너가 마련



한옥을 개조해 만든 ‘양림살롱 여행자 라운지’



대여 가능한 근대 한복과 양장.

돼 있다. 1930년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근대 양장과 한복을 비롯해 중절모, 가방, 장갑 등 각종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다.

여행자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여행 강좌가 운영된다. 대표적인 게 매월 2·4주 금요일 열리는 여행 토크 ‘오빠는 (언니는) 여행쟁이’로 지역 예술인과 국내외 여행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라운지 오픈 전 안녕소사이티어 안영노 대표의 ‘새로운 투어리즘’, 브랜드·콘텐츠 디렉터 김나나의 ‘일본 사가현의 개성과 다움’ 등이 진행됐고 오는 9일 오후 7시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오픈 하우스 행사와 한희원 작가의 여행 토크가 열린다.

매월 한 차례 진행되는 배움 여행 ‘신사유람단’은 다양한 분야별 멘토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 10~11일 ‘평창페스티벌 청년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양림동을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마담고’와 함께하는 ‘양림동 달빛투어’가 열리며 주말 오전에는 예술가가 참여하는 ‘양림산책’이 진행된다. 또 매월 마지막주에는 양림동과 양림동의 인물을 소재로 한 장소특정형 공연 ‘모던걸 다이어리’가 공연된다.

여행자 라운지를 이용하려면 원데이 티켓(7000원)을 구입하면 된다. 커피·쥬스·우유 등 음료와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으며 짐을 보관하고 하룻동안 자유롭게 드나들며 양림동을 구경할 수도 있다. 모던 의상을 대여(2시간 1만5000원)하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며 월요일은 휴무다.

이새미(25) 매니저는 “양림동을 찾는 여행객들이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며 하룻동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행 라운지라는 이름처럼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70-4239-5040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동커뮤니티 센터 앞 로터리에 이이남 작가 작품 설치

광주 양림동커뮤니티 센터 앞 로터리에 눈길을 끄는 설치 작품이 들어섰다. 강하유리, 벽돌, LED를 소재로 한 이이남 작가의 ‘1904 ~ 2017 LIGHT’(사진)다.

유진벨 선교사의 활동으로 시작된 양림동 100년 역사 속 근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빛과 고백들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는 벽돌과 부식된 기둥, 돌계단이 주는 영감을 선교사, 선각자, 예술계 인물들의 열과 연결해 성서의 ‘빛’을 통해 투영했다.

12개의 유리 교회는 성서 내용 중 12제자, 12지파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첫 번째 유리교회는 유진벨 선교사가 1904년에 세운 양림동의 교회를 의미하며 마지막 12번째 가장 큰 교회는 2017년 오늘의 양림동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가는 1904년 작은 양림동에서 시작된 선교사, 선각자, 예술인의 희생과 겸손, 사랑의 정신이 현재와 지역을 넘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제작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2월호



여중생 화가·시인 할머니... 농어촌 마을 ‘찾아가는 문화’

‘포크 레전드’ 박문옥 40년 노래 이야기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물로 나오기도 힘들다는 섬마을 사람들에게 ‘문화’는 다른 세상의 얘기일 뿐이었다. ‘찾아가는 문화관’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검은 고양이를 의인화해 상상력을 펼치는 여중생 화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시로 쓰는 할머니 시인까지 농·어촌 마을에 미술관, 도서관,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2월호는 특집 ‘문화 소의 주름’을 펴는 ‘찾아가는 문화’를 통해 시골마을의 문화 향유 현장을 들여다 본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광주 포크의 ‘레전드’ 박문옥씨다. 그의 노래는 서정성과 시대성을 한꺼번에 품었다. ‘직녀에게’, ‘목련이 진들’ 등 광주 포크의 명곡을 만들어 낸 포크 가수 겸 작곡자인 그를 만나 40년 노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에서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화순서 투병중인 영화배우 신성일씨와 지난해 96%기를 이끌며 안방 주역으로 성장한 KIA 타이거즈 포수 한승택 선수를 만나고 왔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집안의 교훈이 되는 가훈이 다 시금 주목받고 있다. 가훈을 써서 집안에 걸어두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여가 지립 이점숙 선생을 만나 가훈에 담긴 여러 의미를 배워본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획 전남도택리지 ‘섬들의 고향’ 신안으로 떠난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도와 모래언덕을 가진 ‘신비의 섬’ 우이도, 시간도 쉬어간다는 섬 증도까지 신안은 곳곳이 힐링 명소다. 여기에 세일 요트 투어와 ‘천도천색’ 자전거 여행, 승마체험까지 관광객들에게 활력을 주는 테마여행도 다양하다. ‘천사의 섬’ 신안으로 겨울여행을 떠나보자.

‘동네책방에 빠지다’ 책방별곡의 여덟 번째 명소는 부산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인디고서원이다. 2004년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을 내걸고 문을 연 이후 전국구 브랜드가 되기까지 인디고서원의 성공비결을 소개한다.

이외에 ‘문학이 흐르는 문학관’에서는 신석정 시(詩)의 심지를 만날 수 있는 부안 석정문학관을 둘러보고, 2018 광주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된 송은유(소설), 김정현(시), 신수나(동화)씨를 만나 당선 소감과 창작 계획 등을 들어본다. /이보람기자 bora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겨울이야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설연휴패키지 | 2018. 2. 14 ~ 18 (5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 스탠다드룸 ₩ 60,000

- 조식별도 1인 ₩12,000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